

제7차 동북아시아지역 입법기관포럼에서의 발언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룽씨

신사숙녀 여러분!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이래 지방 입법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 각 나라 입법 기관들이 또 이곳에 모여 동북아 지역 문화관광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한 충청남도의회 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북아 지역의 인구는 전세계의1/4를 차지하고 경제총량은 약 전세계의1/4를 차지하고 아시아의70%를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호혜의 원칙하에 협력의 영역을 부단히 넓히고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며, 협력의 차원을 향상시켜왔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분야에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문화분야에서 부단히 융합 하고 서로 보완합니다. 동북아지역의 전체성, 국제성과 안정성은 부단히 강화되어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판도중의 매우 중요한 지역 플레이트가 되었습니다.

관광은 인류가 경제사회의 발전성과를 누리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재적인 인문성 뿐만 아니라 발전의 경제성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서 현재 관광산업은 세계 제일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동북아 각국은 모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풍광과 거대한 관광시장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을 거쳐 특히, 중국의 관광 산업이 신속히 발전되었습니다.



동북아는 이미 국제 관광시장 구도중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동북아 각 국, 특히 중·일·한·러시아·몽골은 서로 중요한 관광객 송출국이 되었습니다. 관광은 이미 동북아 각 국가간에 인문교류를 진행하는 주된 내용이 되었고, 관광산업도 이미 동북아 각 국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본국 국민의 취업의 확대, 경제의 발전과 상품소비의 추진을 위하여 매우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일종의 특수한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그 연관도가 높고, 관련된 범위가 넓고, 파급 면이 크고, 선도성이 강해서 신세기 경제 사회 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신흥산업이 되었습니다. 지린성은 문화 관광추진 면에서 국가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대량의 성과 높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동북아 지역 관광 교류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투먼창의”관광위원회 회의(약칭GTI,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4개의 회원국을 포함) 동아시아지역관광포럼(약칭EATOF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한국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몽골 중앙성은 모두 회원입니다)등 교류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동북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 관광 교류 협력, 상품개발 등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둘째는 부양 정책을 강화합니다. 2014년에 『지린성 관광지주산업 가속 건설에 관한 의견』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허베이성을 생태관광 대성, 빙설관광 강성, 피서양생관광 명성, 국경관광 시범성과 국제지역성 레저휴가관광목적지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2015년에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린성 관광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국경관광”관련 내용으로 한 장을 만들어서 우리 성 관광산업이 동북아관광산업 발전 구도에 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문화 관광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북아관광포럼은 유엔 “다투먼창의”비서처에서 발의한 국제적인 관광 학술 교류 회의입니다. 2012년부터 지린성 훈춘시에서 3회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4년 제7회 GTI회의에서 훈춘시는 동북아관광포럼 영구개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북 아시아 각국과 서로 다양한 문화 축제, 예술축제,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대대적으로 문화 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지역 문화 관광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첫째, 지역 문화 관광 협력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합니다. 문화관광은 정부의 여러 부서와 사회 각 층의 협력하에 공동 추진되어 이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 문화 관광 협력 추진 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시켜서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의 관광 문화 부서의 주도하에서 대학교, 미디어 및 사회 각 계의 참여로, 지역문화관광협력의 전략, 방침과 메커니즘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연구하며 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중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문화 관광 산업의 발전, 관광상품의 보급, 상호추천 노선, 상호 관광객 송출하는 등 문제에 대하여 교류와 논의를 합니다.

둘째는 공동으로 동북아 국경 넘는 관광 상품과 노선을 개발합니다. 동북아지역 각 국의 관광 자원, 문화의 우세에 의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장수요를 방향으로 잡고 우리 문화관광 방면의 공통성을 깊이 발굴하고 동북아를 향하여 전세계를 향하여, 공동으로 문화관광상품의 통합과 서비스요소의 조합을 잘 수행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문화적 의미를 향상 시켜 특색 있는 세계 유명한 관광노선을 육성하여, 매력과 판매가치를 형성하여 지역 핫이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세계에 보여줍니다.

셋째는 동북아지역 관광의 편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북아 지역 각 지방은 서로 관광목적지이자 관광객 송출국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본 지역 내 관련 부서에서 지역장벽을 철폐하고 관광적 장애요소를 감소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편리함의 수준을 향상 시킵니다. 국경 인접지역 주민의 편리관광을 돌파구로 삼아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비자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관광비자 및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통관효율을 높입니다.

넷째는 관광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포럼 참가지역은 함께 노력하여 관광을 편리하게 하는 인프라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교통 네트워크를 함께 노력, 구축하여 지역교통운송이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출국 공항 항구가 원활하면서 질서 정연하고, 또한 허브시설의 구조가 합리적이고, 다양한 운송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광통합운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북아지역 관광발전에 대한 교통 네트워크의 추진과 연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통합적인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를 확대합니다.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주제를 추출하여, 통합적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동북아 문화관광을 하나의 통합된 목적지 이미지로 대외 홍보하고 보급하여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부에서는 각 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축제를 적극적으로 상호 참가하고 본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관광자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친구분들. 세계 관광산업이사회 (WTTC)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관광산업은 이미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관광산업이 전세계GDP에 대한 종합적 기여는 전세계 GDP총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취업창출은 전세계 취업총량의 9.5%를 차지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지방경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주산업 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 지방입법기관들과 함께 교류와 왕래를 강화하고, 관광경제를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와 이익을 증진시켜 동북아지역 문화 관광 협동발전에 유리한 국면의 형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